

아프리카중의 아프리카



Alliance In Mission for South Sudan

남수단선교연합(AIMS)

P.O.Box 103
Adjumani, Uganda
Tel: +256-77-191-1358
+256-75-514-9236
Email: ojimission@gmail.com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2019 새해도 벌써 한달이 지나고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지금은 이곳 계절은 아주 메마른 건기입니다. 황토먼지 그리고 숲을 태운 마른 재들이 자고 나면 집안 구석구석에 쌓이는등 사람도 가축도 1년중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지난 1월 26일 토요일 신학교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첫 사역자들을 길러내는데 무려 4년이 걸린 셈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보내 드리지 못한 선교보고를 드립니다.

1. **신학교(Acts Bible College):** 지난 1월26일 첫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2015년 개교시에 총 9명이 입학 했지만 최종적으로 5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식에는 통상 축하객들의 식사와 음료를 다 제공하는 잔치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경비 문제로 인원을 제한 하였지만 무려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키트쿰에서 온 비숍 ITTO 목사의 설교, 캄팔라에서 온 Konyi 목사 그리고 아주마니 지역 기독교협의회장등이 참석하여 축하 해 주었습니다. 최우수 졸업생은 Droma Patrick이 차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이고 멋진 졸업식이었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식후 축하연회에서 푸짐한 음식이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졸업식행사에 소요된 제반 경비는 하늘 정원교회(배정환 목사님)에서 전액 부담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재정문제로 엄두가 나지 않아 미루어 왔던 새로운 신학교 부지의 정지와 담장설치, 그리고 우선 숙소부분의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Town Engineer의 확인 및 승인도 끝났습니다. 이곳은 타운이라 건축허가에만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신학교공사는 어쩌면 저희 남수단 사역의 마지막 과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공간이 확보되면 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역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유치원:

- 바게리냐의 그레이스 유치원, 마지3의 위카유치원 두곳의 유치원도 각각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이곳 학교의 졸업식은 유치원 졸업식이 가장 성대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특별한 졸업식 행사가 없습니다. 유치원의 졸업식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졸업식을 자축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거리 행진을 불허하여 교내에서만 축하행사를 하였습니다. 두 곳의 유치원은 금년도에 많은 새로운 신입생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 이들 유치원은 아직 아이들 책상과 의자가 없는 상태라서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 고아원:

- 아고조 고아원에 솔라전기를 증설하였습니다. 그간 전기의 용량이 부족하여 밤에 잠간 썩 전등만 겨우 이용하곤 했는데 이제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에 각각 전기를 설치하여 충분한 전기가 공급되어 컴퓨터 이용은 물론 야간활동에도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전기공사는 동일로교회(김오용목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완공되었습니다.
- 고아원 아이들 중 4명이 2018년도에 초등학교 7학년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모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아고조 난민촌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를 기숙형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질 아니하여 한명은 바게리나, 또 다른 한명은 움베에 있는 비디비디 난민촌으로 보내고 두명의 여학생은 타운에 있는 기숙형 학교로 보냈습니다. 교복과, 운동복, 운동화, 매트리스, 책등 제반 교재들을 새로 준비하는데 이곳 형편으로 꽤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도 책임지고 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수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이들이 별 탈 없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방학기간동안 남자 아이들이 5,000여장의 벽돌을 찍고 구웠습니다. 고아원에만 있어서 이런 일들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원 동원하여 일을 시켰는데 좀 매끄럽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직업훈련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4. **교회사역들:** 각 지교회들은 별 다른 어려움 없이 다들 착실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아고조 임마누엘교회: 지난해 12월 성탄절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4일 밤에는 성가대원들과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난민촌을 돌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축복을 빌고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하였는데 이런 행사는 이들에겐 처음이어서 많은 지역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자정예배에는 난민촌내 많은 사람들까지 동참하여 아주 뜻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후 약 4키로 떨어진 인근 부락인 빨레모 마을에서 까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가 늘었습니다.
 - 이보아 교회: 월드미션선교회가 후원한 이보아교회의 마감공사(내외벽 벽체공사, 미장공사,바닥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0여장의 벽돌을 찍고 굽는 작업까지 마쳤는데 이 벽돌로는 교회부지내에 유치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난민들이 많이 살아 가는 난민촌 사람들에게 교회는 큰 희망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전도사인 패트릭은 신학교를 졸업하자 사역에 열심인데 청년들을 동원하여 집이 없는 가난한 장애인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도 시작을 했습니다.
 - 바람말리 교회: 사역자인 마틴은 드디어 교회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바게리냐 난민촌에 살았는데 이제 모요의 바람말리 지역으로 와서 사택도 짓고 본격적인 시역에 들어 갔습니다. 다들 큰 사역들이 기대가 됩니다.

5. 기타 사역 및 기타 단신들

- 엔지오 "함께하는 사랑밭" 에서 남수단 난민촌 말라리아 퇴치 사역을 위해 후원한 모기장과 그리고 말라리아약품을 마지3, MOYO의 이보아, 그리고 아고조 난민촌,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게 나누는 행사를 실시 했습니다.
- 엔지오 WECA의 지원으로 아고조 초등학교, 그리고 아보아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후 이들 여학생들에게는 재활용 여성 생리대를 지급하였습니다.
- 남수단 북쪽 테레케카 지역은 낙후된 원시 문다리 부족이 사는 마을입니다. 오래전 그 지역을 몇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역 교회들의 요청에 의거 부족어로 된 성경책을 구입하여 전달하였습니다.
- 우간다 정부에서 관내 여러 고아원에 대한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리틀엔젤스 고아원이 시설, 운영, 복지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 이곳에서 두 개의 유치원, 고아원, 그리고 신학교, 여러 개척교회등을 다 돌아 보느라 사실상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이 일들을 함께 나누어 감당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사진들>



말라리아 약품 전달



여학생 위생교육



모기장 전달



졸업축하연



성찬식



성경책 전달(테레케가)



이보아교회



성탄절 전야제



유치원졸업식

7. 기도제목입니다.

1. 금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아원 아이들의 학업을 위하여
2.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신학교육 사역에 동참할 좋은 교수진 확보를 위해.. 그리고 신입생들을 위해
4. 신학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5. 선교지에서의 치열한 영적싸움에서 승리하도록

2019년 새해 설날 아침에

신현가, 김경숙 선교사 드림.